

# 부위원장 모두발언

2019. 4. 24.

##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보증제도를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임직원 분들

연대보증 폐지 제도를 사업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실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신용보증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과 은행연합회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대보증 폐지 진행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현황 및 성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대보증 폐지는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창업의지를 확산시키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우리과 유사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여전히 경영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보다 한발 앞서  
연대보증 폐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연대보증 전면 폐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감소,  
우량기업으로의 신용할당,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제도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전년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연대보증 없이 공급된 법인기업 신규보증 8.3조원 증가 :  
(’17.4~’18.3) 2.2조원 → (’18.4~’19.3) 10.5조원, +8.3조원(377% ↑)
- ▶ 기존보증의 연대보증 6.3조원 감축 : (’18.4~’19.3) △ 6.3조원

한편, 당초 우려했던 중소기업 금융 위축은 없었습니다.  
총공급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고,  
특히, 재무성과가 부족하여 보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하였던 창업기업 보증지원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 ▶ 총보증공급 0.8조원 증가 : ('17.4~'18.3) 66.5조원 → ('18.4~'19.3) **67.3조원**
- ▶ 창업기업 6.8조원 증가 : ('17.4~'18.3) 25.2조원 → ('18.4~'19.3) **31.9조원**
- ▶ 창업기업 비중 9.7%p 증가 : ('17.4~'18.3) 37.8% → ('18.4~'19.3) 47.5%
- ▶ 저신용기업 비중 4.4%p 증가 : ('17.4~'18.3) 33.2% → ('18.4~'19.3) **37.6%**

이와 같이 창업기업과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한 것은 과거 재무실적과 경영인 인적담보 위주의 보증심사의 추(鎚)가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력·성장성 심사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 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년여만에 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보증기관, 은행이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결과입니다.

연대보증 폐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3. 보증기관과 신용보증제도가 나아갈 길

신용보증 제도는 정보 비대칭에 기인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라는 시장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핵심적인 금융제도입니다.

보증기관은 중소기업과 은행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중소기업에는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은행에는 중소기업 대출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혁신금융」이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지닌 혁신기업을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정책입니다.

「혁신금융」은  
금융권이 창업·중소기업인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은  
「혁신금융」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을  
벗어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과 사후관리 능력을 높이는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을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증시스템이 「혁신금융」의 토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보증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로, 기업간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증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데이터와  
다른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업 평가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기업평가를 고도화하는  
新보증심사 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입니다.

혁신성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교화하여  
보증시스템의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다양한 신용정보 변동요인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 시스템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상 이상징후 발생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에 따라 컨설팅, 신규자금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밀착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인 정보를 개선하여  
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책임경영을 이행한 경우  
관련인으로서의 등록을 제한하고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급하여 등록을 해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4. 마무리 말씀

로버트 쉐러는

“새로운 금융시대”(Finance and the Good Society, 2012)에서  
금융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이며,

기술발전을 활용한 금융시스템 혁신을 통해  
금융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원대한 목표를  
완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빅데이터, AI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집·이용과  
미래성장성 예측 등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발전을 금융시스템 혁신에  
효과적·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갈 때입니다.

보증기관과 은행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대보증의 폐지와 보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일선에서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수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의견과 바람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친화적인  
「혁신금융」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